

코스피 2500 시대, 주식으로 돈 좀 벌어볼까요

글 정순우 기자(매일경제신문 부동산부)

불가능할 것만 같던 코스피 2500 돌파가 너무나 쉽게 이뤄졌다. 형이 땡겨주니 동생도 신이 났는지 코스닥도 800선을 돌파했다. 체감경기가 그리 나아지는 분위기는 아닌데 밖에서 바라보는 대한민국 경제는 좋은지 외국인의 돈이 계속 몰려들고 있다.

매달 받는 월급만으로는 2% 아닌, 200% 부족한 대한민국 직장인. 주식시장 호황이란 소식에 또다시 고민에 빠진다. 주식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고 주식으로 이미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도 있다. 한번만 더 주식에 손을 대면 손모가지를 자르겠노라는 각오로 주식계좌를 정리한 사람도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많다.

생각도 다르고 처지도 다르지만 지금 우리의 고민은 오로지 하나다. “지금이라도 들어가면 돈을 벌 수 있을까?”이다. 이런 심리를 겨냥한 재테크 책이 쏟아져 나오고 인터넷에서는 노숙자가 주식으로 수십억을 벌었다는 정체불명의 광고가 눈에 띈다.

필자는 언론계 입문 후 약 3년 동안 주식시장을 취재했다. 증권회사, 애널리스트, 펀드매니저 등 제도권부터 시작해 부테크(소규모 M&A나 자본조달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 작전꾼, 슈퍼개미 등 재야고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람을 만났다. 수많은 만남을 통해 내가 느낀 한 가지는 주식시장이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상식적으로 작동하는 ‘시장’이 아니라는 점이었다. 수많은 사람이 섰던 양의 탈을 쓰고 사리사욕을 챙기는 이른바 ‘선수’였다. 제도권, 비제도권을 떠나 믿을 수 있는 사람 자체가 거의 없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주식시장에서 개인투자자는 살아남기 어렵다. 많지도 않은 돈을 갖고 단기간에 큰 수익을 거두려고 하는 대부분의 개미가 여기에 해당한다. 본인이 투자하는 기업이 어디에 있는지, 뭘 만드는데도 모르는 상태로 덜컥 돈을 베풀하니 선수를 이길 수 있을 리가 만무하다.



그래서 나는 주변 사람들이 주식을 하겠다고 하면 “당신이 지금 발을 담그려고 하는 그곳이 얼마나 추악하고 위험한 곳인지 먼저 알라”고 조언했다.

외국인이 투자한 주식은 무조건 우량주?

한국증시는 유난히 대외변수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 이유는 다양하지만, GDP 대비 수출의 비중이 높은 점, 국내에 투자돼있는 외국계 자금이 많다는 점 두 가지가 대표적이다.

주식시장에서 외국계 펀드가 투자했다는 소식은 종종 호재로 인식된다. 한국 증시에 투자하는 외국계 펀드 대부분이 미국 또는 유럽계다. 동양인이 동경하는 서양이다.

하지만 과연 그들이 선한 마음으로 건전한 선택만 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외국인들은 막대한 돈으로 오랫동안 한국증시를 좌지우지했으며, 그 과정에서 막대한 돈을 챙겨갔다. 그 돈 모두 우리 개미들의 피땀이 서려 있는 돈이다.

시작은 IMF 사태로 잘 알려진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였다. 외환위기는 외국인 대상으로 발행한 한국 국채의 만기가 돌아왔는데 국고로 보유하고 있는 달러가 부족해 상환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었다. 달러가 부족하기는 했지만, 대한민국의 경제력이 그만큼 최악은 아니었다. 주요 기업들의 성장 잠재력도 여전했다.

하지만 당시 한국인들은 그런 초대형 위기를 겪어본 적이 없었다. 나라가 망할 것 같으니 다들 갖고 있던 주식을 던졌다. 주식이란 매도자와 매수자가 제시한 호가가 일치

할 때 거래가 이뤄지면서 가격이 형성되는 구조다. 팔려는 사람만 있고 사려고 하는 사람이 없으면 주가는 순식간에 곤두박질칠 수밖에 없다. 정작 그 기업이 정상적으로 잘 가동되고 꾸준히 이익을 내고 있을지라도 말이다.

한국 알짜기업들의 주가가 바닥까지 추락하자 외국인들은 헐값에 이를 사들였다. 국부유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았지만, 정부는 당장 달러를 마련해야 하니 달리 방법이 없었다. 외국인들은 그렇게 사 갔던 기업을 몇 년 후 한국 기업들에게 되팔았다. 사들인 돈보다 몇 배는 비싼 가격이었다. 외환은행이 대표적이었다.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크게 증시가 출렁였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패턴은 비슷했다. 금융위기의 시작이었던 미국계 투자은행(IB) 리먼브러더스의 파산 소식 이후 한국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연일 주식을 팔아치우며 불안감을 조성했다. 2000선을 노리던 코스피 지수가 불과

서너 달 사이 900선 아래로 떨어졌다. 그러자 외국계 증권사에서는 “한국 경제는 기초체력이 튼튼하기 때문에 코스피 하락은 과도하다. 지금이라도 저가매수의 기회로 활용하자”는 의도가 다소 뻔해 보이는 분석보고서를 내놓기 시작한다. 그로부터 한국 증시가 금융위기 직전 수준을 회복하기까진 2년도 채 안 걸렸다. 외국인들은 또 한 번 한국에서 돈을 긁어모았다.

외국인 하면 선진국형 정석 투자를 할 것이라 착각하기 쉽다. 하지만 외국인이 어느 상장사에 투자했다는 공시를 보고 그 기업의 정체를 인터넷으로 추적해보면 의외로 실체가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상당수가 ‘검은 머리 외국인’이다. 외국에 껍데기뿐인 회사를 하나 차려놓고 실제 운영하는 주체는 한국인이다. 이들이 하는 일은 거의 작전꾼들의 패턴과 다를 바가 없다. 외국인이 투자한 사실이 호재로 받아들여진다는 점을 악용한 셈이다.





‘퇴직금 60만원으로 35억원 벌었다’ 광고의 진실

“어느 50대 직장인은 퇴직금 60만원으로 35억원을 벌었다.” “어느 군인이 군대에서 모은 월급을 갖고 제대 후 10억원을 만들었다.” “강남에 사는 벤츠를 타는 20대 여성은 자신이 주식으로 15억원을 번 통장을 공개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뉴스를 보면서 이 같은 광고를 접한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을 것이다. 호기심에 클릭해 본 사람도 적잖을 것이다. 이런 광고 대부분 인터넷 카페나 증권방송과 관련된 것들이다.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주는데 약간의 돈을 지불하는 소수의 정회원에게는 좀 더 고급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이 주로 나오는 패턴이다. 그러면서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없는 주식계좌를 보여준다. 수백 %씩 수익을 거둔 종목들이 빼곡하다. 사람들은 당연히 그 통장의 소유주가 증권방송에 소개되는 그 고수일 것이라 착각하며 매달 수십만 원의 돈을 쓴다.

하지만 이런 증권방송이나 카페는 대부분 회원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다른 구조로 움직인다. 특히나 회원제로 유료종목추천 서비스를 한다면 운영자는 제사보다 제삿밥에 더 관심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주식으로 큰돈을 벌었다고 광고하는 것 또한 회원을 늘리려는 의도일 것이다.

적어도 필자가 경험한 바로는 진짜 주식으로 돈을 번 사람들은 자신의 신원이 공개되는 것을 극도로 꺼린다. 세무조사도 걱정이고 돈 많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여러모로 피곤해지기 때문이다.

증권방송이나 카페가 종목추천의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것은 그나마 죄가 가벼운 편이다. 회원들의 돈까지 가로채는 악질도 있다. 어떤 종목을 추천하기 전 본인이 먼저 대량으로 매집한 후 추천받은 회원들이 매수하려고 달려들면 비싼 가격에 팔아치우는 방식이다. 작업 후에 주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결말은 달라지겠지만 누군가가 대규모로 주식을 팔아치웠다는 소문이 돌면 주가는 하락하는 경우가 많다. 이건 작전꾼의 행동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 여기에 회비까지 받으니 더하면 더하지 못하는 것 같다.

지금껏 설명한 내용은 빙산의 일각이다. 한국에서 가장 더럽고 위험한 시장이 바로 주식시장이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주식을 하겠다면 “공짜점심은 없다”는 명언을 항시 머릿속에 새기며 투자하길 권유한다. 성투를 기원합니다. **KAPA**